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구매력지수(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2만8036달러이다. 이는 아시아 38개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하는 순위라고 한다.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소득은 국민총생산액을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명목소득과 달리 삶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2만 달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위의 수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물건들을 샀다 버리고 소비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 산다는 것은 가능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인터넷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억원짜리 명품녀 논란이 바로 그 한 예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불자 세상보기

허남걸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윤리적이어서 잘 산다

수 없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명품녀와 같은 소비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권이지만 BMW자동차를 비롯한 고급 외제자동차와 각종 명품 의류 및 장신구, 값비싼 양주와 와인 등 소비시장 측면에서는 세계 4~5위권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불과 10여 년 전만해도 IMF구제금융을 받던 나라임을 상기해 본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해외 유명 상표 기업의 CEO들이 부쩍 자주 서울을 찾는 것도 결국 소비지향적인 한국인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자사의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려는 고도의 판매 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이와 같은 과소비 경향이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단위의 광역단체장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호화화사를 짓는가 하면, 각종 채권을 남발하면서까지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벌인 결과 현재 지자체가 갚아야 할 순수 부채만 15조원에 육박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행과 사용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붐생활자인 필자 또한 여기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버는 액수보다 쓰는 양이 커지면 가정이나 국가가 언젠가 파탄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10년 뒤가 정말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신용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에 사인을 해내고 있다. 며칠만 지나도 수북이 쌓이는 영수증을 보고 있노라면 필자 자신도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금세기의 실천윤리학자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피터 싱어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 특히 부의 소비양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나와 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배려하고 추구하려는 작은 마음씨들을 곧바로 실천하려는 윤리적 의지의 발휘야말로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관습이 되다시피 한 맹목적 소비중심의 삶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곧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공동체적 덕덕이 강를 거듭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사설

장기기증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9월 11일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창립 선포식이 열렸다.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란 그간 독자적으로 활동해 온 불교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가톨릭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및 의료전문가 모임인 생명뜻기(이사장 조원환)가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연대하여 효율적인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미 지난 16년 동안이나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경우 前 趙 宗 泰 總 務 院 長 법 장 스님의 시신기증 등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대내외적인 활약상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장기기증운동은 각 단체들의 유기적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중복 투자의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특히 콘텐츠의 부족이나 산발적인 이벤트성 활동 등은 효율적인 홍보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정 시간 안에 주인을 찾아야 하는 사후기증 장기가 서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알맞은 환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선 이번 연합단체의 출현은 장기기증이 절박한 환우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장기가 필수, 혈액 등도 그것이 절실한 사람에게 가서는 또 다른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다. 대승보살도는 이웃의 아픔을 내 몸처럼 느낄 수 있는 데 있다. 새로 출범한 단체의 활약을 기대하며 장기기증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활짝 꽃피우길 발원해본다.

태고종, 문제 만든 이가 풀어야 한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불신임안 종회에 상정할 만큼 내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 태고종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과 함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4대 종단 가운데 하나라는 불교적·사회적 지위에 있다. 이런 종단이 갈등에 휩싸여 정작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놓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재적의 과반이 넘는 30명의 종회의원들이 불신임안에 지지를 표했다. 불신임을 던졌지만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인공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직무유기,

즉 前 總 務 院 長 雲 山 스님이 종단에 지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다. 운산 스님은 부채 해결을 차일피일 미렸으며, 그러자 종회의원들이 인공 스님에게 해결을 재촉했다. 급기야 인공 스님이 운산 스님을 상대로 지난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前 現 總 務 院 長 이 피고와 원고가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험한 지경에 이르러진 데 대해 그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인연(人天)의 스승이어야 할 종단의 대표급 스님들이 사회법에 의뢰한 현실이 안타깝다. 신뢰의 상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문제를 만든 이가 풀어야 한다. 이것이 태고종이 정상을 되찾는 길이다.

우리 복지관에서 모시는 대상자 중에 김복녕(가명) 어르신이다. 이 어르신께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서울 도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달라서 긴 시간과 먼 거리를 불사해서 복지관을 찾지 않는다. 그 정성어린 차려리 밥에서 작물을 키우시기를 선호한다. 이분들에게는 한여름 피약별 아레가 훨씬 익숙하다. 서울처럼 지하철 요금이 무료가 아니라서 버스 이용료가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김복녕 어르신에게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매주 2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청소와 취사 등의 가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1회당 방문시간은 3시간. 어르신을 위해 이불빨래도 해드리고 병원이나 시장에 모셔드리기도 하고 밭까지 파 드린다.

처음 어르신을 뵈었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어두웠다. 우리 할머니들의 서글서글하고 넉넉한 낯빛이 아니었다. 굳어 있는 인상이 차갑기 그지 없었다. 어르신은 노인 돌보미 선생님, 즉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왔다가 가나 보다, 정부가 보내준 파출부가 제 할 일만 하고 행 하니 가나 보다 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별다른 만족이나 기대가 없으셨던 것 같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사부대중 칼럼

황순재

고창군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가을, 김복녕 어르신 이야기

보호사 선생님 역시 좀처럼 어르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어르신은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밀만한 배달과 푸드마켓 이용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어르신의 낯빛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노인 돌보미 선생님의 신청으로 매주 금요일이면 어르신 댁에 밀반찬이 배달됐다. 한 달에 한 번은 푸드마켓에 진행 중인 상품들이 전달되면서 김복녕 어르신은 자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실감했다.

김복녕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지고 허름한 가옥에서 혼

자 살고 계신다.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자식들로부터 어르신 봉양을 기대할 순 없다. 실직 상태인 아들을 비롯해서 자식들도 어려운 살림 속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오히려 자식들 걱정이 태산이다.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모은 통장을 열어서 손자들의 학비를 보태기도 했다. 본인의 생일날 미역국을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에서 사라졌다. 인근 교회만이 유일하게 어르신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다.

김복녕 어르신이 가을을 맞았다. 유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죽다운 처녀였을 때, 새색시가 되어 시집갔던 해, 산고를 치르며 애 임마가 되던 해, 그 아들이 또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다시 그 아들이 입

사하고 결혼했던 해, 또 손자를 보았던 해, 그리고 남편과 사별했던 해, 그렇게 해마다 어르신과 함께 했던 가을을 다시 맞았다. 산골 독거노인 한 분이 버거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 한 가운데서 관(觀)하고 있다.

가을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나는 풍요, 다른 하나는 고독이다. 감, 대추, 밤, 사과, 배를 비롯해서 가을 햇볕을 머금은 나무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들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난다. 반면 아침·저녁의 선선한 기운은 그동안 무심히 잊고 지나왔던 시간이란 존재를 일깨우며, 일상의 덧없음을 체감하도록 촉구한다. 화려한 단풍 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함이 가슴을 저머 온다.

김복녕 어르신은 풍요를 기약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지금은 진한 고독과 마주하고 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마냥 아무 말 없이 한해 한해의 가을은 얼굴에 피어난 검버섯과 굵은 주름살로만 어르신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내 찬바람 불어치는 혹독한 겨울도 다가올 것이다. 김복녕 어르신은 얼마나 고독할까?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김복녕 어르신은 마냥 외롭기만 할까?

고창군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가 김복녕 할머니의 풍요로운 가을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❶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빙),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봉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